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12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 5.(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2. 5.(목)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이재석 서기관(044-203-4211)	담 당 자	홍충완 서기관(044-203-4212)

성윤모 장관, 업계와 연이어 소통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의지 강조

- 주력산업 분야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Round Table 회의' 개최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2.5(목) 반도체·조선·전자·철강·디스플레이·기계·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업종별 대표기업 CEO**들과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Round Table'**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9.12.5.(목) 14:00~16:00 / 한국생산성본부(KPC) 405호
- 참석 :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정책실장 등
  (업계) 김동섭 사장(SK 하이닉스), 가삼현 사장(현대重), 한종희 사장(삼성전자), 장인화 사장(포스코), 양재훈 부사장(LG디스플레이), 안종선 부사장(두산인프라코어), 임병연 대표이사(롯데케미칼)

□ 이날 회의는 지난 11.19일 신산업 분야의 기업 대표들과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 개최**한 것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업종별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교역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과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 경쟁환경 변화 속에서도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 ①**제조업 르네상스 성과 및 정책제언**, ②**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③**협업과 공동노력**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성윤모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다음의 **3가지를 강조**하였다.

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OLED, 친환경선박, 미래차 등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도,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

②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신기술**과 전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기술**들을 **전 업종과 산업에 빠르게 접목**해 나갈 필요

③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

□ 성 장관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전략과 **자립화·초격차·재도약·탈바꿈** 등 업종별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제조업 르네상스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음의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① 내년 중 20개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조기 달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확산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통해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로 전환

② 지난 11.13일 전면 시행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미래 유망품목으로의 선제적 사업재편, 신산업 투자** 등에 대해 **절차간소화, 규제완화,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

③ 전 **업종별 생태계 내의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지원하여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한편, **현대중공업**과 **반도체협회**에서 **'선도기업 주도의 조선산업 생태계 협업 전략', '업계 공동 노력을 통한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성장관은 “생태계 내의 **선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공급사들을 발굴**하고,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가 他 업종에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에 이어 추후 **산업 지능화** 분야 **기업들과도 두루 소통**하면서 **현장과 호흡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첨부 1. 회의 개요
첨부 2.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홍충완 서기관(☎ 044-203-4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회의 개요

1. 추진 배경

○ **업종별 대표 기업 CEO**들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및 업종별 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모색('20년 업무계획에 반영)

○ 신산업 분야 1차 회의에 이어 **주력산업 분야 2차 회의**를 개최

1차 : 신산업(7개社)	2차 : 주력산업(7개社)	3차 : 산업 D.N.A
시스템반도체(삼성전자), 미래차·수소(현대차), 바이오(셀트리온), 친환경 선박(현대重), 이차전지(LG화학), 로봇(로보스타), 재생E(한화큐셀)	메모리반도체(SK하이닉스), 조선(현대重), 전자(삼성전자), 철강(포스코), 디스플레이(LG D), 기계(두산인프라코어), 석유화학(롯데케미칼)	AI/산업지능화 관련 기업

2. 2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12.5(목) 14:00~16:00, KPC 회의실(405호)**

○ **참석자 : 장관**, 산업정책실장, 김동섭 사장(SK 하이닉스), 가삼현 사장(현대重), 한종희 사장(삼성전자), 장인화 사장(포스코), 양재훈 부사장(LG디스플레이), 안종선 부사장(두산인프라코어), 임병연 대표이사(롯데케미칼)

○ **토의 주제** : ①**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정책 제언, ②**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③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도착 및 사진촬영**	
	14:05~14:10('5)	**모두 말씀**	**장관**
발표	14:10~14:30('20)	❶ 조선산업 생태계 협업 전략('10) ❷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현황('10) * 제조업르네상스 추진현황 및 성과 깔본 대체	현대重 반도체협회
토의	14:30~15:55('85)	**자유 토론**	
	15:55~16:00('5)	**마무리 말씀**	**장관**

첨부2 산업부 장관 모두말씀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이제 어느덧 다음 달이면 2020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로 더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기업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감에 있어
현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 기업인들의 진솔한 의견과 제언을 경청하고,
현장과 호흡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난달에는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님들과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과 건의가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방안을 비롯해
이업종간의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내외 여건 및 과제

글로벌 경기 하락과 교역 침체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조선 등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먼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OLED, 친환경선박, 미래차 등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도,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신기술과
전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기술들을
전 업종과 산업에 빠르게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 정부 정책 추진경과 및 방향

정부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전략과
자립화·초격차·재도약·탈바꿈 등
업종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합심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수소 등 신산업 창출과
자동차 부품, 조선, 섬유패션 등 주력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업종별 전략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민관 합동의 노력에 따라,
자동차·조선 등 어려움에 처했던 주력산업이 반등하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전기차, OLED 등 미래성장품목이
기존 수출 주력 품목들을 대체해 나가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우리 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수립해온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제조업 르네상스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통해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20개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조기 달성하고,
공동 R&D, 신뢰성·양산평가, 자금·입지·규제완화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협력사업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미래 유망품목 중심으로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13일 전면 시행된 기활법 개정안을 통해
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투자에 대해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alue chain의 최상단에 있는 선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공급사들을 발굴하고,
생태계 내의 기업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해주시는
조선 부문의 선도기업 주도 생태계 협업 전략 사례와
반도체 부문의 기업간 공동 노력을 통한 인력양성 사례는
다른 업종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마무리 말씀

오늘 회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년도 정책 구상과 미래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각 기업에서 추진 중인 역점 과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하여
업종간의 벽을 허물고 공유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